환승 불편 해소되나

광주 시내버스 내달 8일부터 26개노선 조정

지난 연말 전면 개편된 광주 시내버스 노선이 대폭 손질된다. 환승 및 통학불편·도심상권 위축 등 시민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2개 간선 신설·13개 노선 연장 등 26개 노선을 조정·운행키로 한 것이다.

광주시는 24일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21일 노선개편에 따른 ▲환승 및 통학불편 ▲도심상권 위축 등을 해소하기위한 '시내버스 노선개편 보완대책'을 마련, 다음달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도심 통과 간선노선 신설=동과서, 남과 북으로 교차하는 2개의 간선을 신설한다. 옛 20번을 되살린 '두암~도심~매월' 노선을 신설, 광주시내를 동서로 가로지르며 승객을 나르게 한다. 봉선~운암~문흥 노선은 남북으로 시내를 관통해 주요 주거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진월 17번 등 13개 노선을 연장하고, 상무 02번 등 3개 노선은 통합한다. 이와 함께 일곡 28번 등 7개 노선은 경로를 조정한다. 〈표〉

■광주시내버스 노선 조정 〈2월 8일 시행〉

구분	노선 수	조정 노선
계	26	
노선 신설	2	간선신설1(두암-도심-매월), 간선신설2(봉선-운암-문흥)
노선 연장	13	진월17, 지원51, 지원52, 금남55, 금남57, 금남59, 송암72, 용봉83, 용전86, 송정98, 지원151, 진월177,1187
노선 통합	3	통합1(상무02+송정39+송정196) 통합2(첨단40+첨단93) 통합3(송암74+두암82)
경로 조정	7	일곡28, 첨단30, 지원35, 풍암61, 송암73, 진월79, 첨단95
기타	1	마을버스 790

이에 따라 광주시내 버스 노선은 현재 86개에서 85개로 줄어든다.

지원 51번(증심사~문화전당역)의 경우 옛 1번을 되살려 첨단지구까지 연장운행하고, 송정98번(호남대 광산캠퍼스~목련마을)도 옛 222번과 유사하게 충장로·조선대 등을 경유해 봉선동까지 연장한다. 진월177번(전남학숙~백운광장)은 양동시장까지 가게 된다.

지원 151번(화순~전남대병원)은 광천터미널까지, 상무 02·송정196번은 송정39번으로 통합돼 나주터미널~장등동까지 운행, 화순과 나주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게 됐다.

◇상권 및 학생 배려=18개에서 10개로 노선이 줄었던 양동시장은 원래대로 18개 노선이 경유한다. 대인·말바우·남광주시장 등 다른 재래시장 노선도 늘었다. 4개 노선이 없어진 금남로·충장로 등 도심 상권에는 5개 노선을 추가 투입해 25개 노선이 경유한다.

이에 따라 양동시장과 금남로 등 도심상권은 시내 거의 모든 주요 주거지에서 환승 없이 접근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 통학이 불편했던 중흥동·산수 5거리·금호·풍암·문흥·일곡지구 등에도 연계 버스가 투입된다. 광산구 삼도동 일대에는 마을버스 노선을 폐지하고 2개 노선이 들어가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고생 개학과 설 대목에 맞춰 개선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24일 오후 조선대병원에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조정훈씨의 손을 형 정호씨가 꼭 잡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상대 동생·남편 위해 사랑의 '신장 맞교환'

조선대병원서 이식수술

A가족(형제): 조정호(기증인) → 조정훈(이식인)
B가족(부부): 박명희(기증인) → 김철원(이식인)

10년 넘게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동생, 4년 동안 같은 병으로 고생한 남편을 위해 형과 아내가 신장을 서로 기증한다. 신장이식 수술 중에서도 극히 희귀한 '맞교환 이식' 수술이 25~26일 조선대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난 1996년, 조정훈(39·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씨는 배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아갔다. 병명은 콩팥이 망가진 신부전증. 이후 조씨의 건강은 급속히 나빠져 투석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가 됐다. 그 후로 5년 뒤, 어렵게 뇌사자로부터 콩팥을 기증받아 건강을 되찾았다.

조씨는 희망을 품고 교회서 전도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했다. 하지만 시련은 다시 찾아왔다. 지난해 9월, 같은 병이 다시 재발했다. 형 정호(41)씨가 "콩팥 한 개를 떼서 동생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혈액과 조직이 맞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개인 사업을 하는 김철원(41·광주시 북구 양산동)씨도 지난 2000년 11월부터 혈액투석을 받아왔다. 올해로 7년째, 일주일에 3일은 꼬박 병원서 지냈다. 4시간씩 혈액투석을 받고 나면, 2~3시간은 어지러워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한다. 이를 보다 못한 아내 박명희(여·38)씨가 콩팥 한쪽을 기증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조직이 맞지 않아 불가능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이사장 한정남)는 두 가족의 '희망의 다리'가 됐다.

김씨는 25일 조씨의 형에게, 조씨는 26일 김씨의 아내에게 콩팥을 기증받아 조선대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는다.

조씨와 김씨는 "주위의 도움으로 힘든 시련을 이겨낸 만큼 봉사하는 새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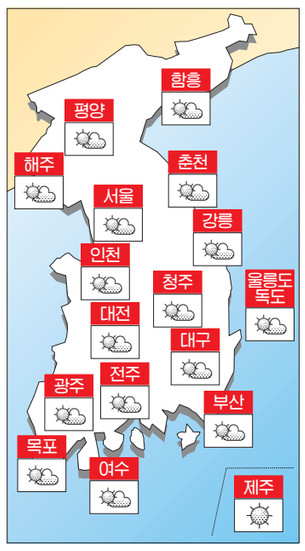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햇살 가린 아침안개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맑은 후 흐려지겠다.

1월 25일 (음 12월 7일) ◇전국날씨

광 주	맑은 후 흐려짐	-2~10℃
목 포	맑은 후 흐려짐	0~9℃
여 수	맑은 후 흐려짐	2~10℃
완 도	맑은 후 흐려짐	0~10℃
구 례	맑은 후 흐려짐	-5~11℃
해 남	맑은 후 흐려짐	-5~10℃
장 흥	맑은 후 흐려짐	-5~10℃
고 흥	맑은 후 흐려짐	-2~10℃
순 천	맑은 후 흐려짐	-6~11℃
영 광	맑은 후 흐려짐	-3~9℃
진 도	맑은 후 흐려짐	0~10℃
전 주	맑은 후 흐려짐	-3~9℃
남 원	맑은 후 흐려짐	-6~9℃
정 읍	맑은 후 흐려짐	-3~8℃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목 포 밀물〈 06:32 18:45 썰물〈 11:39 --:--
여 수 밀물〈 01:07 13:21 썰물〈 07:04 19:35

▲해뜸 07:37 ▲해짐 17:53 ▲달뜸 11:00 ▲달짐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31(수)
날 씨						
최저/최고	-1/6	-3/1	-4/2	-4/3	-3/3	-3/3

건조한 겨울 '산불 조심'

내일·30일 많은 눈

지루한 겨울 가뭄이 2주 넘게 지속되고 있다. 건조한 겨울날씨는 오는 26~27일, 30일~31일 두 차례에 걸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산불' 잇따라=건조한 날씨 속 초속 평균 3m의 바람이 더해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4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남구 압촌동 인근 송학산에서 불이 나 소나무 30년생 1천200그루 등 임야 0.5ha(5천㎡)를 태우고 약 2시간 만에 꺼졌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께 나주시 다도면 방산리 인근 야산에서도 불이 나 임야 0.7ha(7천㎡)를 태웠다.

앞서 23일 밤 11시51분께 해남군 부평면 영전리 윤도산에서 불이 나 잡목 등 1ha(1만㎡)를 태운 뒤 약 3시간50분 만에 꺼졌으며, 지난 22일 밤 9시께 순천시 가곡동 향림사 뒷 야산서도 0.15ha(1천500㎡)가 소실됐다.

◇'건조주의보' 언제 내리나?=건조주의보는 실효습도 35% 이하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실효습도가 낮을수록 공기 중에 포함된 수분이 적어, 불이 나기 쉽다는 뜻이다.

광주의 실효습도는 23일 현재 45%며, 전남은 여수 38%·완도 46%·목포·진도 55% 등 40~50% 분포를 보이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날씨가 건조해 나뭇잎 등이 바싹 말라 불이 쉽게 번져 큰불이 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야산 인근 주민이나 등산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건강식품 원료 일부

'기능성' 확인 못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들 중에서 일부의 '기능성'은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박영인 고려대 생명과학대 교수팀 등에 연구용역을 맡겨 32개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기능성을 문헌조사·동물실험·임상시험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원료의 경우 일부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감마리놀렌산의 경우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혈액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필수 지방산의 공급원 역할이나 생리활성물질이 들어있는지 여부는 규명할 수 없었다. 또 베타카로틴도 항산화작용을 하고 유해산소 예방에 도움을 주지만, 피부건강 유지에 기여하는지 여부는 입증할 수 없었다.

식약청은 아울러 인삼·홍삼제품은 앞으로 '원기회복이나 자양강장에 도움을 준다'는 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육체적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쪽으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양심 자전거' 깨끗하게 손질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사는 광주도시철도공사·광주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24일 상무역 등 '양심 자전거'가 비치된 지하철 역을 돌면서 자전거 세척과 점검을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대 기성회비 8.8% 인상

입학금·수업료는 5%씩

전남대가 2007학년도 등록금 중 입학금과 수업료는 각각 5%, 기성회비는 8.8% 인상하기로 했다.

전남대는 24일 제3회 재정위원회를 열어 2007학년도 기성회비를 8.8%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25일 개최되는 기성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상률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전남대는 당초 입학정원 감소·물가인상률·국고 지원금 감축 등을 감안할 때 두 자릿수 인상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나,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학부모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해 인상률(9%)보다 0.2%포인트 낮춘 8.8%로 책정했다.

입학금과 수업료 인상률이 각각 5%인 점을 감안하면, 총액 대비 등록금 인상률은 8.5%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이필상 고려대 총장 논문 5편 표절 확실"

고려대 교수의회의 진상조사위원회는 24일 이필상 고려대 총장의 논문·책 표절 의혹과 관련, "이 총장의 논문과 책을 분석한 결과 2편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으며 다른 3편도 표절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는 "표절 판정이 확정된 것은 1988년 발표된 '우리나라 채권수익률의 기간구조에 관한 연구'와 '외채관리에 있어서 통화 선물의 경제적 이득에 관한 실증적 연구' 등 2편"이라며 "최다 8편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26일 열리는 교수평의원회에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한 뒤 이 총장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 표절 논란에 대한 교수의회의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